7-20-2025 주일 설교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고린도전서 1:1-9
말씀제목: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율법 시대를 살았던 다윗왕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대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 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시 40:6-8)

그는 때가 차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통하여 모든 율법의 죄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사 53:4-6)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자신이 창조하신 죄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던 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숫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요, 새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년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사 1:10-13)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 왕은 미래에 자신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피흘리심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써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다윗처럼 주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바라보던 유대인들과 함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왕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을 본 마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마 27:50-53)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에 희생제물들이 흘리는 피는 앞으로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이며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르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히 10:1-8)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써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히 10:10-14)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8-9)

은혜로 구원받아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성령으로 가득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제거되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살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죽음을 초월한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롬 14:17-19)

다윗왕은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네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케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5,12)

하나님의 왕국에서 은혜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